

KBS 방송언어 연구와 순화의 현황과 전망

박경희
KBS 아나운서

I. 방송언어가 갖는 사회적 의미

세계적 공영방송으로 모범이 되는 방송사로 흔히 영국의 BBC와 독일 ZDF, 일본의 NHK 등을 들고 있다. 이들 방송국은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향력 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와 권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은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영방송들에서 사용하는 방송언어'는 그 나라의 가장 표준적이고 정제된 말을 사용하기에 언어의 순정성이나 공손성 면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성언어로 인식되어 시청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BBC 영어는 잘 정제된 표준적인 방송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대처 여사가 공인으로 나서기 전에 BBC 영어를 3년 동안 공부할 정도로 BBC 영어는 영국의 국어 교사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1926년 라이트 경에 의해 창설된 BBC 발음국은 올바른 발음을 위한 연구와 인명과 지명에 대한 신속한 표현 체계 구축으로 그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발음이나 강세 등의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서 BBC 영어의 권위를 지켜 나간다.

BBC 발음국에서는 강한 사투리나 비 표준적인 억양을 사용하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표준말과 교양 있는 영어를 구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BBC는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뉴스 캐스터, MC, DJ 등 방송인에게 표준적인 방송 언어를 구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언어로서 BBC 영어는 표준적이면서 품위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 같은 언어 정책이 BBC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드는데 바탕이 된 것이다.

일본의 공영 방송인 NHK도 BBC와 마찬가지로 1934

년에 방송 문화 연구소 내에 '방송 용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말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문부성 문화청 국어과로 보내면 국어 심의회에 넘겨 일본 국어 연구소와 공동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일본의 공용어를 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도 이미 시청자와의 약속을 통해 KBS의 방송언어가 표준 한국어가 되도록 하고 이를 더욱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1983년에 발족된 '한국어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아나운서실의 '한국어 연구회'는 '바른말 고운말'을 제작 방송하고 한국어 상담실 운영, 바른말 포스터 제작 배포, 청소년을 위한 표준한국어 시범 학교 운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 전국 순회 우리말 강연회' 개최, PD와 기자 리포터등 방송 출연자에 대한 방송언어 교육 등 표준어 보급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한 매년 자문위원회 등 학계와 연계하여 남북한 방송언어 연구를 포함해 국어와 음성언어를 망라한 연구논문을 출판하고 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상 언어의 오염을 막기 위해 아나운서실에서 한 해 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송언어 심의 사례를 발음과 어휘, 문법, 맞춤법 등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오용 횟수가 많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방송언어 순화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한다.

이처럼 각국의 공영방송들이 자국의 언어 순화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방송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파급 효과가 순기능과 역기능 양 측면에서 모두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송매체의 막강한 힘은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드라마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II. 해외의 한류 열풍과 한국어 교육

얼마 전 필자가 진행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몽골 현지 통신원을 연결해 현지에서 부는 한류 열풍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는 방송의 막강한 힘이 국경을 넘어 지구촌에 미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여타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몽골에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비추어지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이 한류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으로 ‘한국 스타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간단한 한국말들은 누구나 알고 말하는 유행어가 되었다고 한다. 현재 몽골에는 5개의 공중파 방송이 있는데, 5개 방송국 모두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의 프라임 시간대에 한국의 드라마를 앞 다투어 방송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이곳 방송국에서 방영된 KBS의 <명성황후>와 <해신>은 몽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명성황후의 경우 기존의 멜로 위주의 한국드라마에 비판적이었던 몽골의 지식인들까지 열광적으로 시청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한다. 또한 몽골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 영화에서 비춰지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의 문화는 몽골의 의식주를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본주의가 들어온 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TV를 통해 본 멋스럽고 예쁜 한국배우들의 모습은 이곳 몽골사람들의 의생활을 바꿔놓았고, 유제품과 고기의 단조로운 식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이 이제 야채와 김치를 누구나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구소련 시절 낙후된 기법으로 지어졌던 건물들에 비해 한국식 공법으로 편리하고 견고하게 지어지는 아파트는 몽골사람들의 주거문화를 바꾸고 있다. 이 내용을 들으며 일본에서 <겨울연가>의 선풍적인 인기몰이로 한국어 열풍이 불었고 겨울연가의 드라마 대본이 한국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가 떠오르면서 한류에 편승하여 국외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문화적인 할인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러기에 앞서 방송언어가 갖는 공적 책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III. 방송언어의 법적 기준

방송은 매체의 특성상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고 시, 청취자의 극히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가 용이하므로 방

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 언어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우리나라 방송법(2004년 3월)에서 방송언어와 관련된 조항은 第6條(방송의 공정성과 公益性)중 6항,7항,8항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이 내용들을 방송 언어에 관련시켜 본다면 ‘방송이 우리말과 글을 통해 겨레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새로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에서 방송 언어와 직접 관련되는 규정은 제 8절 52조(방송언어), 제53조(외국어 등) 이다. 각 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2조 (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언어의 위상

현재 방송환경은 매체의 발전 속도가 어지러운 정도이다. 오늘의 뉴미디어가 내일의 올드미디어가 되고 있다. 위성방송은 이미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으며 ‘DMB’방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잠시 뒤에는 IPTV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 같다.

2005년 5월부터 위성 DMB는 본방송을 시작했고 지상파 DMB는 2005년 12월 1일에 방송을 개시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두 매체가 점점 유사해지면서 양 매체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매체가 DMB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방송 환경이 다매체 다채널로 특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대중오락적인 오락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지상파 방송의 영향은 막강하다. 당장 기존의 지상파 방송처럼 편성에 따른 생방송을 시청하고 인터넷에서 보고싶은 콘텐츠를 선택하듯 주문형 비디오(VOD)를 골라 볼 수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V)등의 등장은 앞으로 치열한 매체 간에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편리하게 수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ABC방송의 유명 앵커 'Ted Koppel'은 언론의 적대 관계적 역할이 잘 보장된 자유사회에서 저널리스트가 기업가나 권력자에 대항하는 것은 그리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의 또 다른 敵은 광고수입의 감소나 통신재벌의 다양화와 수직적 합병, 그리고 뉴스와 오락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the breezier, chattier style'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말처럼 모든 방송이 오락 지향적으로 흘러가면서 '방송언어' 역시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큰 틀에서 조망해 본다면 수많은 채널 가운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바른 방송언어를 사용하는 방송인의 실천이 담긴 품위 있는 콘텐츠일 것이다. 다른 매체와 달리 보수성향이 강한 방송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공공성은 여타의 미디어가 따라 잡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V. KBS 한국어 팀의 연간 추진 업무

5.1 KBS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2004년 8월 8일 제1회, 2005년 5월 1일 제2회에 이어 2005년 8월 7일 제3회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연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제1회 시험]

- 일시 : 2004.8.8, 10:00-12:00
- 장소 :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제주 등 전국 9개 도시 21개 고사장
- 지원자 16,562명 / 응시자 11,318명(응시율 68.3%)

[제2회 시험]

- 일시 : 2005.5.1, 10:00-12:00
- 장소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청주,전주,춘천,제주 등 전국 9개 도시 18개 고사장
- 지원자 12,143명 / 응시자 9,530명(응시율 78.5%)

[제3회 시험]

- 일시 : 2005.8.7, 10:00-12:00
- 장소 :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전주,춘천,제주,인천,수원,강릉 등 전국 12개 권역 22개 고사장
- 지원자 13,071명 / 응시자 10,339명(응시율 79.1%)

- 제2회 시험에 이어 제3회 시험 역시 유료시험(응시료 1만 5천원)으로 치러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자립 기반을 유지했음.

- 2회 시험 대비 응시자가 806명 증가해 만 명을 넘었고 응시율 역시 2회 시험 대비 0.6% 상승한 79.1%를 기록해 회를 거듭할수록 응시자와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음.

- 3회까지 누적 응시생이 33,919명으로 단기간에 응시자 수 3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KBS 한국어능력시험이 전국민 대상의 한국어 능력시험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음.

- 특히 제3회 시험을 시행한 후 별도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해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차후 국가 인증시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음.

[실업고-덕수정보산업고, 인문고-신일고, 특수고-공주 한일고, 군-공군교육사령부]

5.2 KBS 한국어상담소 운영

- KBS 한국어연구회가 2005년 10월부터 국가 지정 국어상담소로 선정됨에 따라 KBS 사내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 언어와 우리말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음.

- 상담전화 : 02-781-3838
- 홈페이지 : korean.kbs.co.kr
- 상근 상담원: 지영서, 박경희, 최윤락, 박영주, 박태남, 박현우, 유지철, 오태훈, 김은성, 이승연, 신성원, 아나운서 등 11명

5.3 KBS 한국어 포스터 발간

- 방송 진행자 및 출연자들이 자주 틀리거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여 KBS 한국어 포스터로 제작해 사내에 게시함으로써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유도했음.

- 1월(어휘 선택은 적절하게)
- 2월(삼가야 할 사동 표현)
- 3월(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 4월(올바른 띄어 읽기)
- 5월(순화한 일본식 한자어)
- 6월('부딪다'의 용법)
- 11월(조사의 올바른 사용)
- 12월(정확한 모음 발음)

5.4 방송출연자를 위한 2005 KBS 한국어 공개강좌 실시

- KBS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출연자,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공개강좌를 실시해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KBS의 방송언어를 순화하고 표준 한국어를 가꾸어 나가는데 기여했음.

[1차]

- 교육일시 : 2005.5.30-6.1
- 교육장소 :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
- 교육대상 : KBS 내·외부 진행자 및 출연자, PD, 기자, 작가, 포스트 요원 등 231명
- 교육강사 : 유만근 성균관대 명예교수, 지영서 KBS 한국어팀장, 박경희, 박현우
- 강의내용 : 방송언어 순화의 의의와 방법, 표준어 규정과 표준발음, 외래어 규정

[2차]

- 교육일시 : 2005.12.1-12.2
- 교육장소 :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
- 교육대상 : KBS 내·외부 진행자 및 출연자, PD, 기자, 작가, 포스트 요원 등 150명
- 교육강사 :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지영서 KBS 한국어팀장
- 강의내용 : 방송인을 위한 표준발음, 방송언어 표현의 실제 등

[3차]

- 교육일시 : 2005.12.3
- 교육장소 : 아나운서교육장/KBS 본관 제1회의실
- 교육대상 : KBS 보도본부 기자 29명
- 교육내용 : 1부 - 기사 낭독의 이론편[강성곤 아나운서] 2부 - 개별지도[안희재 아나운서 등 11명]

- KBS 한국어 공개강좌의 연속사업으로 보도본부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아나운서들이 정확한 발음을 위한 맞춤교육을 실시함.

5.5 표준한국어와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연중)

- 미래 우리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해 날로 혼탁해지고 있는 청소년 사회의 언어순화에 이바지했음.

- 교육대상 : 서울 성심여자중학교 학생
- 교육일정
 - 1차 : 3.30, [주제 : 방송 진행자의 언어적 소양/신영일 아나운서]
 - 2차 : 4.09, [주제 : 리포팅 기법과 우리말의 다양성/김은성 아나운서]
 - 3차 : 5.18, [주제 : 방송 현장에서의 방송언어 실제/한석준 아나운서]
 - 5차 : 9.21, [주제 :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강성곤 아나운서]
 - 6차 : 10.19, [주제 : 방송언어와 표준어/윤인구 아나운서]
 - 7차 : 11.30, [주제 : 틀리기 쉬운 우리말/이광용 아나운서]
 - 8차 : 12.07, [주제 : 낭독실습 평가/박주아 아나운서]

5.6 2005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회의 개최(4.14)

- 국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음.

- 그동안 한국어를 연구, 보급하고 KBS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온 KBS 한국어연구회가 국어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자문위원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음.

-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학급에서의 읽기와 말하기 교육의 강화, 방송인과 방송 프로그램 평가제도의 시행, 표준어 보급 프로그램의 확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국어능력 검증 제도의 정착, 국어상당소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음.

- 참석자 : KBS 한국어연구회 자문위원 11명, 사장, 편성본부장, KBS 한국어팀장, 아나운서팀장 및 팀원
- 회의내용 :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토의

5.7 해외 한국어 방송요원 교육 및 교류

-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한국어 방송요원들에게 한국어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KBS의 표준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한국어의 전파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심어주었음.

- 교육기간 : 8.22-8.27
- 교육강사 : 이성민 아나운서
- 교육대상 : NHK 국제방송국 한국어 방송요원 13명
- 교육장소 : NHK 국제방송국 스튜디오
- 교육내용 : 한국어의 억양(고저장단과 발성), 뉴스낭독의 이론과 실제, 기사문 번역과 이해 등

5.8 일반 시청자 대상 언어교육

- 교사와 학생, 방송직 종사원 등 일반 시청자 및 공군 행정 참모들을 대상으로 KBS 표준한국어를 교육하고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한국어 지킴이로서의 KBS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했음.

① 공군 행정참모 대상 KBS 언어교육(5.18)

- 교육대상 : 공군 행정 참모 40명
- 교육강사 : 지영서 KBS 한국어팀장, 김관동, 박경희 아나운서
- 교육내용 : 표준발음과 발성이론, 발음의 교정과 낭독 기법, 의식 진행 기법 [모든 교육 예산을 공군이 부담함으로써 KBS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국민 언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음.]

② 전라남도 중등학교 1급 정교사 국어 자격 연수(8.17)

- 교육내용 : 한국어의 표준발음
- 교육강사 : 지영서 KBS 한국어팀장
- 교육대상 : 전라남도 중등 국어과 교사 33명
- 교육장소 :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연수관 강의실

③ 케이블 TV SO 아나운서 언어교육(9.5-9.6)

- 교육내용 : 방송언어의 특성, 방송문장론, 방송문장 작성, 방송실습 평가 등
- 교육강사 : 최윤락 아나운서 등 7명
- 교육대상 : 케이블 TV SO 아나운서 31명

- 교육장소 : 수원 KBS 연수원

④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취업준비생 대상 언어교육(9.12)

- 교육내용 : 올바른 언어생활
- 교육강사 : 지영서 KBS 한국어팀장
- 교육대상 :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취업준비생 100여명
- 교육장소 : 인하공업전문대학 시청각교육실

5.9 방송언어순화자료집 제61집 발간 및 배포(12.31)

- KBS 한국어연구회가 2005년 한 해 동안 KBS TV와 라디오 전 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송언어 심의 결과를 발음, 어휘, 문법과 의미, 맞춤법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오용사례를 대체한 순화사례를 제시한 방송언어 순화자료집을 발간해 일선 제작 현장에 배포했음.